

철학사

58 헤겔의 정신현상학 (아서 홈즈 박사, 휘튼 대학교)

그 사람 어떠세요? 여기 로버트 피치한테서 처음부터 들은 얘기로 는 완전 엉망이라고 하던데요. 칸트 이후에, 아니, 칸트 이후에 누군가가 엉망이라는 건 좀 이상하게 들리죠. 칸트 이후에는 모든 게 쉬워야 할 텐데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밥에게 어려움은 번역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번역을 탓하고 있었죠. 제 생각에는 어려움은 오히려 사고방식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어휘력이 다소 부족하긴 하지만, 익숙해지죠. 하지만 사고방식이요. 칸트는 오늘날 전형적 사고라고 불리는 방식, 즉 논증의 흐름을 추적하고 근본적인 전제나 초월적 전제, 숨겨진 개념들을 밝혀내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변증법에서 그는 단순히 논증의 논리를 검토하고 논리적 비약이 있는 부분을 찾아냅니다. 당신은 그런 방식에 익숙할 겁니다. 그가 사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 논리를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추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따라갈 수 있죠. 하지만 그건 헤겔 철학이 아니에요. 헤겔 철학은 마치 수영장에 뛰어들어 방향을 잡으려고 애쓰는 것과 같죠.

제 말은, 마치 경계를 알 수 없는 수영장 같다는 뜻이에요. 이쪽 방향에 뭐가 있는지, 저쪽 방향에 뭐가 있는지 감을 잡으려고 애쓰는 거죠. 자기 위치를 파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온갖 다양한 방향에서 기준점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헤겔은 마치 무언가의 한가운데에 떡하니 자리 잡고는 사방으로 촉수를 뻗으며 주변 환경 속 다른 사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으려 애쓰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헤겔의 글을 읽는 것은 색다른 경험이 됩니다.

좀 더 형식적으로 말하자면, 지난번에 언급했던 내용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칸트는 연역적 사고를 통해 명제들 사이의 논리적 연결고리를 추적합니다. 그의 논리는 명제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한 명제에서 다른 명제로의 논리적 추론에 관해서 말하자면, 헤겔은 명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개념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그는 개념을 분석하고, 개념을 풀어내고 있어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이죠.

수영장에 들어갔다 나온 후에 비유를 섞어 쓰는 격이죠. 하지만 사고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개요 형태로 설명해 드린 , 정, 반, 합이라는 모든 요소를 포함한 그의 체계의 거대한 구성을 보세요 .

보시다시피, 모든 것은 가장 추상적인 개념인 '존재'에서 시작됩니다. 나머지 모든 것은 '존재'라는 개념을 탐구하고, 더 구체화하려는 시도입니다.

아니요. 존재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보세요. 마치 칸트가 우리에게 존재, 즉 실재는 술어가 아니라고 말한 것 같잖아요.

그것은 개념이 아닙니다. 이에 헤겔은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답합니다.

세상에,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려면 책 한 권이 통째로 필요하죠. 게다가 그 이상도 필요해요. 아시잖아요.

존재 자체의 사실. 아니, 그건 존재 그 자체가 아닐지도 몰라. 그냥 주어진 것일 뿐이지.

그저 있는 그대로의 사실성. 의미 없는 사실. 본질 없는 존재.

하지만 헤겔에게서는 그런 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번에 언급했듯이 헤겔은 그런 면에서 그리스 철학의 정신에 훨씬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존재라는 개념에는 온갖 함의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함의들을 풀어내고 분석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개념의 내면으로 어떻게 들어갈까요? 글썄요, 그가 그 개념에 접근하는 방식은 마치 이리저리 헤매는 것처럼,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런 자유로운 성찰의 모드에서, '존재'라고 말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응? 네. 비존재. 존재할 것인가, 존재하지 않을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존재 하는 것이 더 나은지 , 뭐 그런 거죠.

존재, 비존재, 있다 또는 없다, 정말 그런 걸까요? 누군가가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다면 , 어떤 점에서, 어떤 시점에서 묻는 걸까요? 존재와 비존재는 서로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 '되어감'이라는 개념을

생각하면 오히려 결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언가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을 때, 그것은 이전의 것이 아니면서도, 아직 완전히 된 것은 아니지만, 거의 그 상태에 가까운 것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 정체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지금 없는 것이 곧 생겨날 것이고, 곧 생겨날 것은 지금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생성의 본질, 즉 존재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려는 것은 그것을 좀 더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개요가 있는 거죠.

그는 존재 개념의 다른 차원들, 즉 긍정이나 부정뿐 아니라 '얼마나', '양', '전부', '일부' 등을 탐구하며 나아가고, 결국 존재에서 본질로 나아간다. 표면적으로, 정적인 논리에서는 본질과 존재가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는 그것이 무엇인지와는 구별된다.

존재가 본질에 앞선다고 할 수 있겠죠. 사르트르가 바로 그런 말을 할 겁니다. 그리고 사르트르는 헤겔과 결별하는 거죠.

헤겔에게 있어서 본질 없이는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상적인 차원에서는 두 개념이 서로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체적인 현실에서는 서로 결합합니다. 이해되지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논리를 존재의 진정한 개념으로 옮겨야 합니다. 여기서 그는 '개념'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존재는 개념입니다.

텅 비고 무의미한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미가 풍부한 개념입니다. 이해하시겠지요?

그래서 그는 그런 방식으로 작업을 계속합니다. 밥, 이것이 그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읽으면서 이 점을 명심하면 그가 하는 일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예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찾을 수 있다면, 그의 논리에서 짧은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본질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가 여기서 무엇을 하려는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모순 개념론에서 파란색이라는 개념이 다른 개념, 즉 파란색이 아닌 개념과 대립된다고 말합니다. 이 다른 개념은 노란색처럼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단순히 추상적인 부정의 개념, 즉 파란색이 아닌 것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은 본질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것이다. 그러나 무의미한 대립, 그의 말대로 무의미한 대립, 소위 모순되는 개념들 사이의 무의미한 대립은 일반 법칙의 거창한 공식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그러한 대립 관계에 있는 모든 술어 중에서 하나만 가지는 것은 모두 그렇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은 파란색이거나 파란색이 아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 당신은 파란색이거나 파란색이 아니거나, 흰색이거나 흰색이 아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노란색이냐 아니냐. 유익하죠? 하지만 사실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가치도 없어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으니까요.

정체성과 대립은 그 자체로 대립하며 모순의 원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간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모순 의 원리와는 대조적으로 양극성의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존재와 비존재는 연속체의 양극단에 위치한다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이것이 반대에 대한 훨씬 더 정확한 정의입니다. 양극성. 그러므로 그는 존재와 비존재뿐만 아니라 유한과 무한, 이상과 실재, 하나와 다수, 보편적인 것과 특수한 것, 현상 과 실재, 이성과 실재 등 다양한 양극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

보시다시피, 이것들은 정적인 논리 에서 대립되는 개념 으로 존재합니다 . 하지만 현실에서는 모든 것이 양극성을 모두 지니고 있습니다. 헤겔의 철학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 후에 화이트헤드를 읽겠습니다. 그의 대표작인 『과정과 실재』 서문에서 그는 헤겔 철학자인 F.H. 브래들리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읽게 될 화이트헤드 역시 헤겔처럼 이분법을 거부하고 변증법적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그가 형이상학적 이상주의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화이트헤드는 형이상학적 이상주의자가 아닙니다. 화이트헤드는 헤겔의 체계를 보다 자연주의적인 토대 위에 옮겨 놓은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진화와 발달이라는 자연적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자연주의적인 토대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이트헤드 다음 주에 읽게 될 존 듀이에게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헤겔 전통에 철학적 뿌리를 두고 출발하여 일종의 자연주의적 형이상학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점을 명심하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강의 계획서를 기억하신다면, 지금 모든 것이 실존주의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저는 19세기와 20세기를 헤겔의 계승자라고 불렀습니다.

화이트헤드와 과정 신학에도 해당되는 말이고, 존 듀이와 미국 실용주의에도 해당되며, 유럽 현상학과 실존주의에도 해당됩니다.

마르크스주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변증법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변증법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기억해 두세요.

문자 그대로 '다이알레고'는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추론의 사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철저히 생각하는 것이죠.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증법이라는 사고방식은 존재라는 개념을 깊이 있게 고찰하고, 그 과정에서 존재의 여러 측면으로 나타나는 부수적인 개념들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네, 좀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 하고 계신 일에 대한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책 한 권을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행 중에 참고했을 수도 있는 책입니다.

하지만 그 책은 우리 졸업생인 메릴 웨스트폴이 쓴 책입니다. 제 생각에는 헤겔에 대해 쓰인 책 중에서 가장 읽기 쉬운 책 중 하나입니다. 제목은 『헤겔의 정신현상학에서 역사와 진리』입니다.

헤겔의 정신현상학에서 역사와 진리. 웨스트폴은 제가 아직 읽어보지 못한 헤겔의 종교철학에 관한 최근 저서도 냈지만, 이 책은 특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의견이나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지난번에 나눠드린 헤겔 개요 자료 다들 받으셨나요? 못 받으신 분 계신가요? 다들 받으셨을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마음의 현상학, 즉 '가이스트(Geist)'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용어는 고대 앵글로색슨어에서 유래했으며, 유행, 영혼을 의미합니다.

제가 "그가 말하는 '마음'의 의미를 명심하라"라고 하는 것은 말장난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헤겔이 말하는 '마음'이나 '정신'은 어떤 영혼의 실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헤겔은 실체론적 형이상학을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의 형이상학은 과정 중심적입니다. 이는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중요한 구분점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들 중 일부는 근본적인 것, 즉 변하지 않는 본질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실체 형이상학은 파르메니데스가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헤라클리토스처럼 과정에 대한 이해에 더 관심을 기울였고, 과정을 불변하는 실체보다 더 궁극적인 것으로 여긴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헤라클리토스는 같은 강에 두 번 발을 담그지 않았다고 기억하시죠? 바로 그 과정과 실체 사이의 교대, 그 대립이 그 이후로 우리에게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데카르트에서 시작된 철학 운동은 실체 지향적 입니다. 이는 기계론적 과학의 영향 때문일 수도 있는데, 기계론에서는 물질이 종종 비활성 물질로 여겨졌습니다.

영원하고, 변하지 않고, 나눌 수 없는 불활성 물질의 알갱이들. 이처럼 변하지 않는 물질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마음이나 영혼 또한 변하지 않는 기저로 쉽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칸트가 이러한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칸트가 한 일 중 하나는, 실체라는 개념이 우리의 관념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물에 덧씌우는 주관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헤겔은 그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는 창조적 활력이라는 의미에서의 정신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새롭게 떠오르는 의식과 자의식, 즉 낭만주의적 개념을 빌리자면 모든 것을 관통하며 맥동하는 창조적 정신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겔의 형이상학을 특징짓자면,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했지만, 낭만주의적 이상주의라고 특징지을 수 있을 겁니다. 네,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정신이나 영혼의 본질로 보는 관점인데, 창조적 자유가 온 세상에 넘쳐흐르는 낭만주의적 의미로 이해되는 것이죠. 또는 진화론적 이상주의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잠재적 창조적인 것들이 창조적 정신의 완전한 발현, 즉 정신적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곳. 따라서 생물학적 진화뿐만 아니라 문화적 진화 또한 생기론적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역사적 발전은 그러한 관점에서 이해됩니다. 미술사도 그러한 관점에서 이해됩니다. 종교사도 그러한 관점에서 이해됩니다.

종교적 신념, 이미지, 실천 등에 반영된 정신적 자유가 점점 더 널리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화적 이상주의이며, 변증법은 바로 그 과정을 추적하는 논리입니다.

네, 그 과정을 추적하는 논리 말입니다. 그 과정에 맞춰져 있죠. 정반합은 성찰의 과정이고, 현실을 마주하는 과정입니다.

보시다시피 , 이성이 곧 실재 입니다 . 따라서 성찰 과정 또한 실재하는 과정입니다. 둘은 일치합니다.

네, 바로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헤겔이 사고의 추상적 형식인 논리의 근본 명제에서, 사고의 무의식적 발현인 자연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형식을 지닌 정신은 추상적 형식과 무의식적 발현을 통합하여 의식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개인 의 자의식 발달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의 사회적 의식 발달, 즉 개인의 사회적 의식뿐 아니라 사회, 국가, 민족의 자아 정체성 발달에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절대적이고 포괄적인 정신의 역사 속에서 완전한 자아 자유와 자의식의 발달에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세 권 모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책은 자기 성찰적인 심리학 서적처럼 보이고 실제로도 그렇게 읽히며, 두 번째 책은 윤리학 서적처럼 읽히는 반면, 세 번째 책은 문화사, 즉 예술, 종교, 철학의 전개 과정을 다룬 책처럼 들립니다.

모든 것이 완성되는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말입니다. 만약 철학이 아래쪽에 있고, 예술, 종교, 철학이 저쪽에 있다면, 철학이 저쪽의 종합이라면, 철학의 절정, 위대한 종합은 무엇일까요? 바로 헤겔의 철학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독일 정신과 독일 민족성, 독일 문화가 꽃피는 가운데, 마침내 그 개념이 명확하게 파악되고 완벽하게 풀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헤겔은 자신의 철학을 모든 철학을 끝내는 철학이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철학은 헤겔의 철학에 대한 일련의 부록과 같은 것이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이해 되시죠? 네. 네, 최종적인 종합에 도달하려면 세부적인 사항들, 그 안에 얽힌 모든 것들을 풀어내야 하는 거죠 .

하지만 최종 합일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제 웃음이 나오시겠지만, 헤겔 변증법이 바로 그런 식이었습니다. 유물론적 토대 위에 세워진 마르크스주의 이론으로 옮겨졌을 때조차도 마찬가지였죠. 마르크스주의에서는 자본주의라는 정(thesis)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반(反)으로 나아가 계급 없는 사회라는 합(합)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다음엔 무엇이 올까요? 아무것도 오지 않습니다. 계급 없는 사회에서는 모든 대립되는 것들을 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계급은 사라졌고, 계급 갈등도, 변증법도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게 바로 천년왕국이죠. 아시 겠죠? 이게 바로 19세기의 진화론적 낙관주의입니다.

그리고 19세기의 진화론적 낙관주의는 바로 여기서 비롯된 겁니다, 헤겔. 바로 여기서 시작된 거죠. 네.

모두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는 목표를 달성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그림이고, 이제 그 안의 몇 가지 요소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관적 정신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점진적인 해방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자유의 전개라고 말했습니다. 감각으로부터 이성이 점차 해방되는 과정이라고요. 감각으로부터 이성이 점차 해방되는 과정이라고요

바로 그런 종류의 이상주의가 그가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성을 감각으로부터 해방 시키려 했을 까요? 첫째, 그는 분명히 경험주의자가 될 리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플라톤이 깨달았듯이, 경험주의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불변의 개념, 즉 위대한 종합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면, 궁극적으로 변화의 과정은 감각 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 그것은 형태, 질서, 그리고 불변의 근원에 의해 좌우됩니다. 따라서 헤겔이 감각의 속박에서 벗어난 이성을 바라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예술에서, 즉 감각적인 소재를 창의적으로 다룰 때, 그 정점에 도달합니다. 이성, 특히 낭만주의자라면 감각적인 소재를 맹목적으로가 아니라 상상력을 발휘하여 다루는 과정에서 이성이 진정으로 작용합니다. 종교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철학에서는 그렇죠. 거기서 가장 구체적인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네.

가장 구체적인 사고는 철학에서 나옵니다. 이해 되시죠? 사고는 감각 대상이 아니라 개념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정적이고 추상적인 것을 피하고 구체적인 것을 발전시키는 것. 자, 그가 이것을 다룰 때, 그가 이 거대한 스크린 위의 사물들을 바라보는 렌즈는 바로 우리 자신의 자의식이라는 렌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가 이 현상학에서 하는 일은, 현상학은 기술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때로는 모방을 하는 것입니다.

역할극. 공감적 묘사. 그는 자신이 묘사하는 상황 속 인물의 감정, 즉 그 인물의 내면 으로 들어가고 있다 .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새롭게 떠오르는 의식이 어떤 것인지 포착하는 것이죠. 이해되지 않아요? 현상학은 20세기로 접어들면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의식적 존재의 구조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의식적 존재의 변증법적 구조를 추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과 분리된 추상적인 의식을 다루려고 하는 게 아니죠. 데카르트의 실수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난로가 있는 방에 틀어박혀 세상이 존재하는지 묻기만 했으니까요.

얼마나 추상적일 수 있을까요? 이해되지 않아요? 영국의 신해겔주의 철학자였던 윌리엄 템플은 1940년대에 캔터베리 대주교가 되었습니다. 그의 저서 중 한 장에는 '데카르트의 실수' 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데카르트의 실수는 스스로 방에 틀어박혀 세상에 무언가가 존재하는지 자문해 본 것이었습니다.

데카르트가 몸을 녹이려고 난로에 불을 지피면서 자신의 몸이 존재하는지 궁금해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나요? 추상적인 것의 자기모순 같은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의식적 존재의 구조입니다. '존재' 라는 단어에 주목하세요.

존재라는 개념을 살펴보세요. 존재란 무엇인가는 우리의 자의식을 통해 드러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자의식적인 존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

아시다시피, 17세기 와 18세기에는 개인을 로빈슨 크루소에 비유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로빈슨 크루소는 단순한 동화 작가가 아니라 사회 철학자였습니다.

다니엘 데포는 『로빈슨 크루소』를 쓸 때 사회 풍자를 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철학적인 저술에서 데포는 이성에 따라 살아가며 자급자족하는, 염소와 경비원 한 명과 함께 외딴 섬에서 홀로 살아가는 고립된 개인을 묘사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는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연을 이성의 지배하에 두고 스스로를 부양할 수 있었습니다. 야만인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는 그들이 금요일 저녁 식사를 준비하려는 순간까지 그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는 프라이데이를 구출했지만, 그가 이성을 되찾아 사회 계약을 맺을 수 있을 때까지 복종시켰습니다 .

스페인 선원들이 오면 그들은 스페인 선원들을 피한다. 스페인 선원들은 이성적이지 못하다. 하지만 영국 선원들이 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그들은 사회 계약을 맺고 영국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데포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개인은 고립된 섬과 같아서 자급자족할 수 있지만, 헤겔에게는 그렇지 않다.

개인이 고립되어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의식조차도 고립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의식적 존재가 갖는 구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있어 이 세상에 다른 존재는 없습니다. 헤겔이 이런 점을 묘사한 또 다른 로빈슨 크루소 이야기를 썼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제 현상학보다는 훨씬 나았을 텐데, 안 그래요, 밥? 어찌면 당신이 한번 써보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네요.

자, 그는 주관적 정신부터 시작합니다. 개요를 가지고 계시다면, 주관적 또는 개인적 정신의 영역이 감각 의식과 관련된 명제로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감각 의식은 자의식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감각 의식은 실제로 동물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변증법적 수준은 자연과 유기체에 대한 거대한 대립의 끝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져 내려와 생리학에 대한 설명으로 연결되며, 이 생리학이 동물 생명체의 의식을 발생시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각 의식은 자연 속의 종합의 일부라고 할 수 있으며, 이제 새로운 대립의 정립이 되는 것입니다.

감각 의식은 생물학적 뇌 과정과 감각 인식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각 의식은 단순히 타인에 대한 의식일 뿐입니다. 타인에 대한 의식인 거죠.

그리고 그것은 자기의식, 즉 감각의식, 자의식과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감각의식의 세계를 다루는 과정에서 자의식이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기 전까지는, 마음, 정신, 이성이 진정으로 자유롭게 작동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식은 단순히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성찰적이고 이성적이며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작용하여 감각의식의 세계를 형성하는 주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객관적 정신으로 나아가고 사회의 법과 질서에 대해 논하는 발판이 됩니다. 법과 질서란 무엇일까요? 바로 이성이 감각의식의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는 작용입니다.

전환되는 부분을 이해하셨나요? 이 선집에는 주관적 정신에 관한 부분에서 발췌한 두 작품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인과 하인의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금욕적이고 회의적이며 불행한 의식입니다. 이 작품들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이미 짐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인과 하인의 관계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끊임없이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소외라는 개념도 여기서 비롯됩니다.

소외라는 개념은 초기 실존주의자들, 마르크스와 엥겔스, 그리고 오늘날의 정치적 올바름 운동에까지 작용하고 있습니다. 소수 집단의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 정치적 올바름을 주장하는 것, 바로 이 소외라는 개념이 그 증거입니다.

사르트르의 사상을 보면 이 주제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핵심은 오직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만 자기의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지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만 자기의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자아의식이 형성되는 현상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겪는 일, 하인이 겪는 일, 그리고 그들이 서로에게 어떤 관계 속에서 겪는 일들을 공감적으로 묘사한 것이죠. 주인과 하인이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만 보더라도, 하인이 없는 주인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이 없으면 주인이 아니고, 주인이 없으면 하인도 없어. 알겠어? 그는 대체 뭐야? 그는 몰라.

그는 실직 상태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정체성은 그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개인의 정체성은 그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어 없이는 목적어가 존재할 수 없고, 주어가 없으면 목적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것들은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이것들은 양극성입니다. 자, 됐습니다. 양극성.

그리고 그가 추적하는 것은 바로 이 양극성 내의 변증법입니다. 고립된 자아는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개별적인 자아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

이제, 자아 정체성을 확립 하기 위해 , 상대방과 대립하는 쪽은 상대방을 없애버리고 부정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인이다." 그러자 하인은 주인을 완전히 자신에게 종속시키려 합니다.

자, 이제 누가 주인인가? 보세요, 내가 스스로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자기 파괴적이고 자기모순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되려면 내가 의존하는 하인이 있어야 하고 , 그 하인이 주인이 되는 거죠. 주인과 하인의 관계에는 자기모순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확신 하기 위해 타자를 부정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나 자신을 부정하게 된다. 여기서 '부정하다' 라는 단어는 헤겔과 헤겔 관련 문헌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이는 단순히 대립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반정은 정을 부정합니다. 둘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독일어로는 Aufgehen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번역하면, '겪어봤다' 라는 뜻입니다. 겪어봤다는 거죠. 겪어봤잖아요.

반증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끝이죠. 정언은 반증을 그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반정립은 정립에 대해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면 점차 둘 사이의 상호의존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스승은 스스로를 독립적인 존재로 생각합니다.

하인은 주인에게 의존적이다. 주인은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하인은 타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인은 타인에게 의존함으로써만 독립적일 수 있다. 그리고 좋은 타인을 위해 존재함으로써 의존성을 넘어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얻는다. 그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다.

'업스테어즈 다운스테어즈' 영화 기억하세요? 당신 시대 이전 영화인가요? 아마 이해하지 못하셨겠죠. 이 영화는 영국 에드워드 시대를 배경으로, 귀족 가족이 위층에 살고 아래층에는 하인들이 있는데, 그중 집사가 특히 눈에 띄는 인물이라는 설정입니다. 유럽 귀족들이 저녁 식사에 초대되면 집사를 만나고 싶어 했죠.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보세요, 그 집사는 주인의 하인으로서 귀족들이 만나고 싶어 할 정도의 지위를 얻었잖아요.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리고 주인 역시 그 하인이 없었다면 지금의 주인이 될 수 없었겠죠.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은 매우 행복한 결말을 보여줍니다. 하인, 즉 집사가 병이 심해 은퇴하고 연금을 받게 되자, 주인은 지하실에 있는 그의 침대 옆에 앉아 오랜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눕니다. 모든 장벽이 사라지고,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관계, 즉 화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저는 소설 '위층 아래층'의 작가가 헤겔을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게는 확실히 헤겔 철학처럼 들렸습니다. 주인과 하인의 관계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상호의존성은 단순히 개인이 서로에게 의존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주의가 곧 독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감스럽게도 페미니즘 운동의 일부 측면이 결혼 생활을 파탄으로 몰고 간 원인이 바로 그 점입니다. 페미니즘 운동은 상호의존보다는 독립을 추구해 왔고, 의존을 피하고 상호의존보다는 독립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가 과도한 의존을 극복 해야 한다고 생각 하지만, 불가능한 독립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18세기식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지고 종합되는 것은 상호의존성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회의주의자, 불행한 의식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는 사실상 명제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는 자유로운 사고를 통해 모든 외부적인 요소로부터 독립성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철학을 기억하시나요? 자유로운 정신 속에서 저는 제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다리를 부러뜨린 노예

에픽테토스를 기억하시나요? 그는 스토아 철학의 정신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스토아 철학에 대한 논제였습니다.

회의론자는 그러한 자유를 한 단계 더 나아간다. 회의론자는 자신의 사고에서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그를 배제한다.

그를 변덕스럽게 대한다. 하지만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 금욕적인 태도에서 회의적인 태도로, 상대방을 완전히 부정하는 태도로, 결국 불행한 의식 상태로 이어진다.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된 개인의 모습이다.

네, 왜냐하면 타인을 부정하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제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회의론자는 매우 불행한 의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헤겔이 언젠가 대학생들을 가르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 모두가 관찰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장 과정에서 한동안 회의적인 단계에 접어든 사람은 내면의 불만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실과의 관계 속에서 정체성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공 상태에 갇힌 채 난로로 데워진 방 안에 있는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관계 속에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들 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분열된 자아, 불완전한 자아가 바로 불행한 의식입니다. 그렇다면 주관적인 정신 안에서의 통합이야말로 진정으로 이성적인 정신인 것입니다.

단순히 감각 세계와 타인을 관찰하는 것을 넘어, 자신 의 독립적인 정체성을 고찰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세계의 질서를 성찰하고 합리적으로 바라보는 존재가 되는 이성. 칸트에게 있어 자유란 언제나 법의 틀 안에서의 자유를 의미한다.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는 결코 아니다.

법의 틀 안에서의 자유, 그것이 바로 이성적인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본질이 없는 존재는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존재에는 로고스 구조가 관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은 법적인 구조 안에서 타인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인과 하인 관계의 변증법에 대한 더 자세한 부분은 여러분 스스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핵심을 파악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그럼 객관적 정신에 대해 몇 마디 하겠습니다. 객관적 정신이요. 여기서 보면 삼원칙이 법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법이라는 개념은 결국 추상적인 거잖아요. 그와는 정반대로, 개인의 양심과 도덕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죠. 추상적인 법에서 가장 구체적인 법으로.

사회적 도덕과 사회 질서의 종합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추상적인 법은 자유를 다루는 맥락을 제공합니다. 추상적인 법은 이성의 지배입니다.

그것은 칸트의 보편적 의무 개념입니다. 그리고 칸트의 의무 개념이 추상적이라는 점, 매우 추상적이라는 점을 인정 해야 합니다 . 추상적인 의미의 법은 권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인권은 객관적인 것으로, 현실에 뿌리를 둔 것으로 여겨집니다 . 물론, 이는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하지만 그 개념을 자세히 살펴 봐야 합니다 . 그 개념을 풀어 내야 하죠 . 그리고 그렇게 하기 시작하는 시점은 법과 권리에 대한 보편화된 추상 개념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개인의 의식에 관한 문제로. 완전히 객관적인 법과 같은 것에서부터 매우 내면적인 양심과 같은 것에 이르기까지.

내면성이라는 의미에서 매우 주관적입니다. 객관적 의무에 대한 논의에서 제 자신의 의식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죠. 물론 칸트는 이 두 가지 모두를 다룹니다.

의무감에서 행동하는 것이죠. 그의 행동은 일종의 도덕 철학과도 같습니다 . 객관적인 권리와 의무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정반합의 원리가 존재하지만, 헤겔은 이 둘을 사회 윤리라는 종합의 틀 안에서 통합하고자 한다. 사회 질서를 다루는 것이다.

보시다시피, 바로 그 점에서 그는 큰 진전을 이룬 것입니다. 적어도 칸트와 칸트 이전 철학자들을 훨씬 뛰어넘는 진전이죠. 왜냐하면 칸트 이전 철학자들과 칸트 자신은 개인을 자유로운 존재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권리를 최후의 수단으로 여겼다. 로빈슨 크루소 이론과 유사하다. 반면 헤겔은 개인이 관계 속에서만 합리성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더 중요한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개인일까요, 아니면 사회 제도일까요? 당연히 사회 구조입니다. 질서 잡힌 관계들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사회 제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개인들 간의 관계를 법의 지배를 받는 패턴. 사회 제도. 따라서 그는 종합을 통해 그것이 훨씬 더 구체화된다고 본다.

우리가 도덕성을 실천하는 것은 사회 구조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행동 해야 하는 것 또한 사회 구조 속에서 가능합니다. 바로 그곳에 법치주의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가족에 대해 할 말이 많습니다. 사회 구조가 구체성과 발전 수준 면에서 개인보다 우세하다면, 그는 이혼에 그다지 찬성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는 이혼에 매우 반대합니다.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그는 국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정치 철학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개인의 의식과 개인의 자유가 국가 주권이라는 틀 안에서 극대화된다고 주장하고자 합니다.

네, 원하신다면 결혼 생활 안에서 우리는 자유가 결혼 생활 밖에서 우리는 자유보다 훨씬 크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안에서 우리는 자유가 무정부 상태의 사회에서 우리는 자유보다 훨씬 크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죠. 이해하셨죠?

그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국가란, 단순히 인구 밀도에 따라 모인 개인들의 대표성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 집단, 사회 질서, 기업, 사유지, 그리고 지방 자치 단체들의 대표성을 갖는 일종의 헌정 정부이다. 왜냐하면 정신은 개인의 자유뿐 아니라 이러한 집단들의 자유 속에서도 자유롭게 표현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절대 정신의 가장 완전한 구현체는 바로 국가이다.

자유 의 가장 완전한 발현은 국가 주권이다. 그리고 그의 역사 철학은 바로 그런 맥락에서 발전한다. 19세기 유럽에서 나타난 현상인 민족 국가의 출현이 절대적 정신의 자유가 점차 고조되는 발현이라면, 그러한 민족주의 운동은 그가 이해하는 바와 같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나타난 신의 섭리라고 볼 수 있다.

보시다시피, 국민국가는 우리가 가장 충성해야 할 대상을 구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19세기 민족주의의 철학적 뿌리입니다.

네, 바로 그런 맥락에서 영국의 헤겔주의자 FH 브래들리가 제가 언급한 '나의 지위와 의무'에 관한 에세이를 썼습니다. 제 의무는 사회가 저에게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의무는 가족에 대한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국에 대한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절대적인 존재인 신에 대한 의무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전쟁과 같은 사안에 대한 그의 관점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는 전쟁을 국가 정신과 국가 주권의 발현이자 표현으로 여깁니다. 전쟁은 국가 정신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헤겔 철학적 강조에서 테니슨의 유명한 크림 전쟁 시, '경보병대의 돌격'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나요? 어렸을 때 학교에서 외워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전부 기억나지는 않아요. 하지만 '경보병대의 돌격'은 기병대가 러시아군의 대포를 향해 돌격할 때 어리석은 전략적 실수 중 하나를 다룬 시입니다.

상황은 대략 이랬습니다. 왼쪽의 대포, 오른쪽의 대포가 일제히 포격을 퍼부었죠. 누군가 실수를 저질렀다는 걸 알면서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군사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으로 꼽히는데, 바로 한 나라의 정신을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어처구니없는 실수 하나에서 비롯된 거죠.

네, 그게 헤겔의 관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헤겔 철학에서 극단적인 국가주의, 특히 20세기 이탈리아 파시즘이 나왔습니다. 네, 이 선집에 그의 역사 철학을 다룬 글이 몇 편 있으니, 그걸 보시면 무슨 내용인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질문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해하시나요? 이건 개괄적인 내용이지만, 전체 선집을 보면 특정 부분에서 더 깊이 있는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월요일에는 절대 정신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여기에는 그의 종교 철학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헤겔에 대한 우리의 탐구를 마무리하겠습니다.